

제31차 ASTAP 회의 및 제1차 APT WTSA-20 준비회의

정삼영 _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센터장
김피터종욱 _ TTA 표준화본부 융합기술표준단 수석연구원



1. 머리말

2019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30차 ASTAP 회의 및 제1차 APT WTSA-20 준비회의는 APT 21개 회원국, 22개 기관멤버 총 180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23명이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총 19건의 국가기고서의 발표와 네트워크 및 시스템, Green ICT & EMF, 사용성 및 접근성 그룹 등의 의장단을 수행하며 EMF, 접근성, 정보보호 분야의 주요 이슈 논의를 주도하였다.

2. APT WTSA-20 준비그룹 및 ASTAP 개요

세계전기통신표준총회(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는 ITU-T 분야 연구반 구조조정, 의장단 임명, 표준화 절차 제개정(결의), 권고안 및 연구과제 등을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서 4년마다 개최된다. 차기 회의는 2020년 10월경 인도 하이데라

바드(Hyderabad)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PT는 ITU-T WTSA-20 회의에 대한 아태지역 공동 기고서 개발, 공동 입장 수립 등을 위해 APT WTSA-20 준비그룹을 설립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조직 구성과 의장단 선출이 있었다.

아태전기통신표준화포럼(ASTAP, Asia-Pacific Telecommunity Standardization Program Forum)은 정부 간 조약기구인 APT의 7개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 중 하나로 1998년 표준화 관련 협의체로 설립되었다. 주요활동으로는 표준화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의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표준화 이슈에 관한 지역 입장 조정, 역내 표준화 활동 관련 의견·정보 교류, 지역 표준 개발 및 ITU 등과 같은 국제표준화기구에 역내 공동 기고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ASTAP 회의는 최근 매년 1회 정도 개최되고 있으며, 총회 산하에 작업반 3개와 각 작업반별로 3~4개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총회 및 산하 그룹에 7명의 의장단을 수임하고 있다.

3. 주요 회의 내용

3.1 WTSA-20 1차 APT 준비회의

이번 회의는 APT WTSA-20 준비그룹의 1차 준비회의로서 조직 구성과 의장단 선출,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준비그룹 총회 산하에 3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총회 및 작업반 의장단 선출과 각 작업반의 업무 범위를 결정하였다.

APT WTSA-20 준비그룹은 차기 논의를 위해 2020년도에 2차(2월/3월, 미정), 3차(6월/7월, 중국), 4차(8월/9월)로 회의 일정을 마련하였다.

3.2 제31차 ASTAP 회의

3.2.1 그린 ICT 및 전자파 인체안전 전문가 그룹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9차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전자파 정보제공체계 기술보고서가 최종 승인되었다. 동 보고서는 EMF 관련 일반인의 인식 제고와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전자파 측정과 자료 제공 정보플랫폼에 관한 것으로 아태지역 개도국들의 지지를 통해 그간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개발하여 전차 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아태지역 전자폐기물 및 회소금속 관리 및 표준화 APT 보고서를 각 국가의 현황,

<표 1> APT WTSA-20 준비그룹 구조

분야		역할
Plenary(총회)		APT WTSA-20 준비그룹 총회
Plenary 산하 그룹	WG 1(ITU-T 작업 방법)	작업방법 이슈 논의
	WG 2(ITU-T 작업 조직)	연구반 조직 구성 및 작업 프로그램
	WG 3(표준화, 규제/정책 관련 이슈)	표준화, 개도국 관련 이슈 논의

※ WG 3는 추후 신규 기술 분야와 개도국 이슈를 담당할 세부 그룹을 구성키로 합의

<표 2> APT WTSA-20 준비그룹 의장단

그룹명		의장	부의장
Plenary(총회)		Mr. Yoichi Maeda(일본)	Dr. 김형준(한국, ETRI) Mr. Xu Heyuan(중국) Mr. Arvind Chawla(인도)
Plenary 산하 그룹	WG 1 (ITU-T 작업방법)	Dr. 이강찬(한국, ETRI)	Ms. Miho Naganuma(일본) Mr. Ashutosh Pandey(인도) 중국(미정)
	WG 2 (ITU-T 작업 조직)	Mr. Noriyuki Araki(일본)	Mr. P. K. Singh(인도) Mr. Nguyen Van Khoa(베트남) 한국(미정), 중국(미정)
	WG 3 (규제, 정책표준화관련 이슈)	Mr. Cao Jiguang(중국)	Ms. Eriko Hondo(일본) Ms. Arezu Orojlu(이란) Mr. Premjit Lal(인도) Ms. Nguyen Khanh Thuan(베트남)

국제표준화기구 현황 및 우수 사례를 추가보완하기 위해 개정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전문가가 에디터로 참여하여 개발, 완성한 바 있는 전자파 인체노출 APT 보고서가 최근 주요국의 정책/제도 및 국제표준화기구 활동내용 등이 보완되어 본 회의에서 개정 승인되었다.

3.2.2 접근성 및 사용성 전문가 그룹

접근성 및 사용성 전문가 그룹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사용성 평가 프레임워크’ 및 ‘IoT 서비스 접근성’ 보고서 개발을 위한 신규 작업항목을 승인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해당 작업항목의 에디터를 수입하였다. ‘사용성 평가 프레임워크’는 자연스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NUI, Natural User Interface)가 활성화됨에 따라 NUI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능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접근성’은 ITU-T SG 20에서 한국 주도로 개발된 사물인터넷 접근성 요구사항 권고(Y.4204)를 기반으로 아태지역 내 장애인 대상의 사물인터넷 서비스 활용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보고서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한편, 29차 ASTAP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개발하고 있는 ‘아태지역 모바일 접근성 현황’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안하여 승인되었고, 차기 회의 완료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3.2.3 정보보호 전문가 그룹

정보보호 전문가 그룹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포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보보호와 관련된 APT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은 28차 ASTAP 회의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신규 작업 항목으로 채택된 이후 지속적인 기고서 제출을 통해 이번 회의까지 4차 작업문서를 완료하였으며 차기 회의 시 완료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또한 우리나라 제안으로 지난 ASTAP 회의에서 신규 작업 항목으로 채택되었으며 타 회원국들과의 지속적인 논의 및 현행화 작업을 통해 2021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회의 때 우리나라 제안으로 신규 작업 항목으로 채택된 IoT 보안 가이드라인은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동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목차와 범위를 확정하고 차기 회의부터 회원국의 기고를 기반으로 완성해 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 암호인증기술 및 드론 보안 관련 국내기술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앞선 보안기술을 공유·홍보함으로써 역내 보안기술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2.4 ASTAP 산업워크숍 및 구조개편 논의

최신 기술, 서비스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와 토의를 통해 역내 국가들의 적시 표준화 및 이를 통한 관련 기술/서비스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ASTAP과 연계하여 개최해 오고 있는 산업계 워크숍은 전자 워크숍에 이어 이번 워크숍에서도 IoT를 주제로 열린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무인정찰기 감지기 기반 스마트 아이(Smart Eye) 기술 개발을 통한 재해 모니

터링 및 상황 대응 기술(ETRI)', '일본 정부에서 실시한 V2X를 이용한 고베 노선버스 실험 결과(Honda Motors/일본)', '필리핀과 Toyota의 V-Hub 표준활용한 재해 복구 통신 및 정보 시스템(아테네오대학/필리핀)', '교통, 에너지, 농업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ASEAN 국가와의 공동 프로젝트(NICT/일본)', 'NEC의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안전, 바이오 인식, 스마트 시티 관리 서비스/기술(NEC/일본)', '5G V2X 기술(ZTE/중국)' 등 새로운 기술/서비스 및 유스케이스들이 소개되었고, 이에 따라 ASTAP 관련 전문가 그룹에서 관련 사항들을 APT 보고서 또는 가이드라인으로의 개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ASTAP이 참가 규모에 비해 너무 다양한 기술/정책 그룹이 활동 중이며, 이에 따라 참가자 간 활발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직 개편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연관 그룹 간 합동 회의를 진행할 것과, APT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도국의 표준화와 관련된 요구사항 파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일본의 제안에 따라 이번 회의는 관련 그룹 간 합동 회의로 진행하여 이전 회의와 비교하여 참가자 수 증가와 논의 수준 향상 등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조직 개편 방향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맺음말

WTSA-20에 대응하기 위한 APT WTSA-20 준비그룹이 발족하여 조직 구성 및 의장단 선출이 마무리되었으며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인 아

태지역 공동기고서 개발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 차원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WTSA-20에서 주요 그룹 의장단 진출 및 한국 주도 결의 채택 등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WTSA-20 국내 대응반 조직을 조속히 설립하여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10년 APT 연구반과 ASTAP을 통합하여 새롭게 구조개편을 한 이래 10여 년이 지나면서 ASTAP 활동의 효율성 제고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ASTAP의 조직 개편 및 아태지역 내 개도국의 표준화와 관련한 요구사항 파악을 위해 설문서를 작성하여 회람하기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차기 회의 시 ASTAP 조직개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의 ASTAP 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ASTAP 조직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산업위크숍의 주제로는 AI, 5G, 양자정보통신이 후보로 선정되었다. 본 위크숍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ASTAP 활동 연계가 강화되고 있고, 관련 전문가 그룹에서 신규 작업 아이템으로 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